

전문가로서의 조언

전환국가에 대한 국가이론과 신그램시안 국제정치경제학에 독특한 전략적 관계론적 접근을 유지한 지식의 중요한 기여물입니다.

Marian Gorynia

- 포즈난 경제대학 국제비즈니스 및 경제학부
- 'm.gorynia@ue.poznan.pl'
- 포즈난 공과대학 경영공학부
- 'katarzyna.blanke-lawniczak@put.poznan.pl'

참고문헌

1. Dunning, J. H. (ed.) 2003. *Making Globalization Good*. The Moral Challenges of Global Capitalism. Oxford: Oxford University Press.
2. Manuela Sofia Stănculescu and Tine Stanovnik (eds.): *Activity, Incomes and Social Welfare* Aldershot and Vienna 2009: Ashgate and European Centre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, 286 pp.

책 내용 요약

이 책은 슬로베니아, 헝가리, 불가리아, 루마니아 등 4개의 새로운 EU 가입국을 활동과 소득 분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. 비교적 맥크로 경제 데이터와 가계예산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. 전환 과정 초기 몇 년 동안 모든 전환국가에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[Flemming and Micklewright 2000; World Bank 2000; Rutkowski 2001]. 이 책은 전환의 첫 단계 이후 발생한 노동시장 활동, 사회 보호 및 소득 분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분석된 기간은 주로 1993년에서 2003년으로, 이 기간은 전환적 경기 침체의 '저점'을 포함하며, 이후 모든 국가에서 경제 회복의 단계가 이어졌지만, 경기 침체의 심각도

폴란드의 FDI 유입

그러나 폴란드를 언급하여 제기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에는 부분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. 폴란드로의 외국직접투자(FDI) 유입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국가의 독특한 내향적 전략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외국 투자자들이 폴란드를 피한 이유는 투자 조건이 불리했기 때문(예: 부족한 운송 및 통신 인프라, 국경 통과 문제 등)이며, 세계 다른 지역에서 투자가 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. 즉, 1990년대 초반에 FDI 유입이 적었던 것은 물리적 인프라의 기본적인 문제 때문이었으며, 이를 드라호쿠필이 과대평가한 대리 서비스 부문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이 논점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셋째, 드라호쿠필이 정확히 지적한 중앙유럽(CEE) 국가들에서의 FDI에 대한 경제 정책의 수렴은 더 일반적인 과정의 일부로 보입니다. 결국, 경쟁적인 국가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동참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며, CEE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관찰된 FDI에 대한 경제 정책의 수렴 경향이 특정 CEE 국가 내부의 상황보다는 외부(세계적)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, 폴란드 독자들은 드라호쿠필이 폴란드의 전환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 일관성 없는 점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. 15페이지에서는 이를 '점진적 전환'이라고 언급하고, 36페이지에서는 제프리 샤크스의 'OCK(OCK: 충격 요법)'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

전반적으로, 이 비스테그라드 4개국의 외국직접투자 정치에 대한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분석은 국제관계, 국제비즈니스 및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,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존경받고 비판적 인 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.

Table

Marian Gorynia
포즈난 경제대학 국제비즈니스 및 경제학부
m.gorynia@ue.poznan.pl
Katarzyna Blanke-Lawniczak
포즈난 공과대학 경영공학부
katarzyna.blanke-lawniczak@put.poznan.pl

References

Dunning , J.H.(ed.). 2003. "MakingGlobalizationGood".TheMoralChallengesofGlobalCapitalism.Oxford : OxfordUniversityPress.

ManuelaSofiaStănculescuandTineStanovnik(eds.): "Activity , IncomesandSocialWelfare"AldershotandVienna2009 : AshgateandEuropeanCentreforSocialWelfarePolicyandResearch , 286pp.

Notes on Poland's FDI Inflows

그러나 폴란드를 언급하여 제기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에는 부분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. 폴란드로의 외국직접투자(FDI) 유입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국가의 독특한 내향적 전략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외국 투자자들이 폴란드를 피한 이유는 투자 조건이 불리했기 때문(예: 부족한 운송 및 통신 인프라, 국경 통과 문제 등)이며, 세계 다른 지역에서 투자가 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. 즉, 1990년대 초반에 FDI 유입이 적었던 것은 물리적 인프라의 기본적인 문제 때문이었으며, 이를 드라호쿠필이 과대평가한 대리 서비스 부문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이 논점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셋째, 드라호쿠필이 정확히 지적한 중앙유럽(CEE) 국가들에서의 FDI에 대한 경제 정책의 수렴은 더 일반적인 과정의 일부로 보입니다. 결국, 경쟁적인 국가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동참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며, CEE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관찰된 FDI에 대한 경제 정책의 수렴 경향이 특정 CEE 국가 내부의 상황보다는 외부(세계적)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, 폴란드 독자들은 드라호쿠필이 폴란드의 전환 과정을 묘사하는데 있어 일관성 없는 점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. 15페이지에서는 이를 '점진적 전환'이라고 언급하고, 36페이지에서는 제프리 샤크스의 'OCK(OCK: 충격 요법)'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

전반적으로, 이 비스테그라드 4개국의 외국직접투자 정치에 대한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분석은 국제관계, 국제비즈니스 및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,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존경받고 비판적 인 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.